‘AICON 광주 2023’ 성료…AI 현재·미래 조망

세계적 AI 석학 대거 참여
생성형 등 세분화 강연 호평
국내외 AI 기업과 업무협약도
글로벌 컨퍼런스 자리매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한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AI·AI 반도체 등으로 세분화한 수준 높은 강연과 AI 시민체험 공간·LG 파빌리온 홍보관 등이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컨퍼런스’로 자리매김했다는 호평 등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에는 인공지능 권위자인 미국 코넬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샨커 V 셀바두라이 부사장 등 전 세계 AI석학들이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새로운 AI기술 트렌드를 제시하고, AI산업 융합 등을 논의했다.

‘AI와 로봇공학-현재의 발전과 미래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다니엘 리 교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포함한 AI의 발전은 인상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면서도 “소비자를 위한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AI의 최신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3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이어 ‘믿음직한 인공지능’을 주제 강연한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샨커 V 셀바두라이 부사장은 “AI는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 2030년까지 16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AI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외에도 구글 조쉬 샤펠 MESA 플랫폼 총괄, 자이스(Zeiss) 코리아 매튜 윌슨 부사장,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로빈 콜건 대표 등의 특별강연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창업 동향 등 다양한 분과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현안과 사례 등이 소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세분화한 주제 강연자로 나선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IBM을 비롯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엔비디아(NVIDIA) 등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의 연구자·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표회에 이어 인공지능 모빌리티(AI+XM), 인공지능 헬스케어(AI+XH) 강연 분과, 대한민국 4대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KAIST), 유니스트(UNIST), 디지스트(DGIST), 지스트(GIST)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엑시스트(AI+XIST) 등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전망하는 강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한 자율주행로봇 무인매장,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엘지LG전자 파빌리온’ 특별 홍보관 등도 인기를 끌면서, 이번 컨퍼런스 성공의 한축을 담당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내년에는 더욱 유익하고 글로벌한 AI컨퍼런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기업인 한국 IBM과 아이티센, 스파크랩, 그리고 창업 벤처캐피털(VC) 바인벤처스 등 국내외 AI 관련 기업 4개사와 AI산업발전 및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해요! 마음산책!’
광주시 자살예방 걷기
자치구별 7·8·16일 행사

광주시는 “7일부터 16일까지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2023년 생명사랑 걷기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 광주자살예방센터, 3개 자치구(남구, 북구,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주관인 이번 행사는 ‘함께해요! 마음산책!’을 주제로 열리며, 지역 주민과 함께 자살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의 중요성 등을 집중 홍보한다.

자치구별 행사일정은 남구 7일 오전 10~12시 푸른길공원, 북구 8일 오후 2~4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산구 16일 오후 2~4시 운남동 근린공원 등이다.

행사는 자살예방체조, 바르게 걷기 방법 및 근력 강화 운동법 안내, 코스 걷기 등으로 진행하며, 걷기 코스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시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지역 안전망 구축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 다빈도장소 환경개선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1577-0199)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유족 통합지원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등 범사회적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박탈감, 정신건강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걷기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자살예방에 관심을 갖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사직도서관
김기정 작가와 함께하는
11일 ‘단무지 독서캠프’

북토크·독서 체험·낭독극 관람

광주시립사직도서관은 “11일 도서관 다목적실과 북카페에서 김기정 작가와 함께하는 ‘단무지(단순·무한·지속) 독서캠프’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기정 작가의 작품 ‘고갯마루 도깨비’, ‘해를 삼킨 아이들’을 함께 읽고 저자와 북토크, 독서 체험활동, 낭독극 관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기정 작가는 2002년 ‘바나나가 뭐예유?’로 작품활동을 시작, 60여권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2004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에서 ‘해를 삼킨 아이들’로 창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활동 하는 독서캠프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직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상생협의체 ‘노사택시’ 시동

4개 노동조합과 동반성장 협의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노사상생 협의체인 ‘노사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5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최근 노사상생 협력을 위한 제1차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협의체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택시’를 첫 운영했다. 광주복지연구원과의 통합으로 4개의 노동조합을 마주하게 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노사 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택시’라는 이름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처음으로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택시에는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과 김미란 사무처장, 김가희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장, 박선화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광주지부장, 정상진 공공운수 광주사회서비스원2지회장, 김병술 광주사회서비스원노조 위원장 등 4개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노동조합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4개 노조는 ‘노사택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노사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해 시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노사택시 가동으로 노사 동반 성장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조직의 긍정적 에너지가 결집돼 광주 시민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북아 5國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1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하는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북아지역 문화’를 주제로 동북아시아 청소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모습, 문화축제 등이 담긴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청소년그림공모전은 2016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5개국 지방정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3~4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개국 지방정부 2037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위가환 광주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이번 전시회가 동북아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다. 광주시는 2008년 가입했으며, 현재 몽골과 북한을 포함한 6개국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동·무등체육관 수영장 개장
광주도시공사 11월 시범운영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일부터 시립 광주 평동·무등체육관 실내수영장을 개장·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산구 옥동 평동체육관과 북구 임동 무등체육관은 각 25m 길이의 5개 레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여과장치를 도입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운영시간은 수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화요일은 휴무다. 11월 한 달 동안은 실내수영장을 무료로 시범 개장하고, 12월 중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안전하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